

#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속 ‘신중론’… 고환율·고물가 ‘변수’

## 전문가가 본 韓 경제 전망·변수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이 경기 상방 요인으로 꼽히지만, 성장의 폭과 지속성을 높고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2%대 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고환율·고부채 부담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금리와 환율 경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 흐름에 따라 경제 전반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경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구기보 송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한영도 한에스엠연구원 원장(전 상명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등 4인의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한국 경제의 내·외부적 환경과 전망,상황변수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 Q.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송) : 지난해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5% 성장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영도 한에스엠연구원 원장(이하 한) : 구조적으로는 1%대 후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확장적 재정과 수출 회복이 결합되면 2% 안팎의 정책 주도형 반등도 가능하다.

-구기보 송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이하 구) :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1.8~1.9%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조) : 지난해 수준이거나 1% 후반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Q. 기존 전망 대비 상·하향 요인은 무엇입니까?

-송 : 상향 요인으로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향 요인으로는 환율 불안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 : 주력 산업과 소비재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 상향 여지가 있지만, 관세 인상과 글로벌 교역 둔화,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이 겹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구기보  
송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한영도  
한에스엠연구원 원장

### 올해 경제 성장률 1% 후반~2%대 전망 반도체 호황 ‘긍정적’, 환율·부채 ‘부담’

### 美 경기흐름 중요… 연준 금리인하 ‘주목’ 지정학 리스크, 제약조건 고려한 정책 필요

### 고환율 기조 유지 땀 물가 안정 어려울 듯 부동산, 수도권 중심 회복… 주식은 변동성

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조 : 미국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한국 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는 있다.

-구 : 정치·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경기 호황이 긍정적 요인이다.

### Q.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 흐름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무엇입니까?

-조 :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중국은 성장 전망이 어둡고, 유럽 역시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 미국 경기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마찰 심화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구 : 미국의 AI 호황 지속과 미·중 갈등 봉합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한 : 글로벌 교역과 금융환경의 방향성 자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Q.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은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한 : 연준 의장 교체와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제도적 이벤트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연준 의장의 정책 성향과 정치 환경의 변화는 금리 인하 시기와 강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 :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고 실물경제와 열 신호도 제한적이어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송 : 미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유럽이나 아시아로 금융투자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

-구 :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과 글로벌 자금 흐름의 유희리가 갈린다.

### Q.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수준까지 경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 :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갑자기 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를 제약조건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한 : 지정학 리스크는 유가·물류·공급망을 통해 물가와 금리, 환율, 투자 흐름을 동시에 흔드는 핵심 거시 변수다.

-조 : 중국은 국내에 과잉생산된 전기차, 태양광, 철강 등을 해외로 실어 나르려 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전 양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 중동은 제한적 영향에 그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휴전 여부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갈등은 일단 휴전 상태이고 내년에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Q. 올해 물가·금리·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 :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압력이 우려된다.

-송 : 올해에도 물가 상승률은 예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구 : 고환율이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을 기대하

기 쉽지 않다.

-한 : 물가는 안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만, 환율과 지정학 리스크가 결합될 경우 유가와 물류비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외식, 의료 등 서비스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임금 인상과 맞물릴 경우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Q. 올해 금융·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 :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제한될 수 있고, 기업 실적 개선 없이는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 부동산은 회복되는 시장을 정부가 억누르는 상황으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역 양극화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

-한 : 주식과 채권 모두 기회와 변동성이 공존하는 국면이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유동성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불안이 동시에 존재해 시장의 방향성은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수도권 중심의 선별적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 기대와 대출 여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세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전국적인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송 : 상반기에는 주식시장 환경이 비교적 양호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조 : 주가는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물경쟁력이 주가 상승의 핵심이다.

### Q. 내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 : 내수 회복의 핵심은 일회성 소비 진작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정책 패키지다. 고금리·고물가·고부채 환경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함께 약화된 만큼 가계 부채 이자 부담 완화와 취약 차주 채무 조정,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고정부 절감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하는 금융·세제·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소비와 투자가 맞물린 내수 회복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송 : 규제 개혁과 시장 자율성 확대가 중요하다.

-조 :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성 지원 남발은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구 :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승용·원관희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1호 ]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7579.1㎡

2. 건축물의 내용(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건축물의 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하 4층 ~ 지상 14층) 2) 대지(면적 : 7579.1㎡(실사용 면적)  
3) 건축면적 : 2,228.5772㎡ 4) 건축연면적 : 32,515.5893㎡ 5) 건배율 : 29.4% 6) 용적률 : 234.1%  
7) 높이에 관한 계획 : 지하 4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미터 이격  
9) 공동이용시설 : 1,939.3238㎡(주민공동시설)

3. 분양신청 기간 :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2월 3일(화)까지(33일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로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일대주택 제외)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	공급면적	비고
분양주택	40	5	40.5254㎡	15.6019㎡	56.1273㎡	16.9785평형
	49	19	49.5995㎡	19.4601㎡	69.0596㎡	20.8905평형
	59A	14	59.8678㎡	22.7446㎡	82.6124㎡	24.9902평형
	59B	6	59.7337㎡	23.8131㎡	83.5468㎡	25.2729평형
	59C	14	59.9767㎡	22.6366㎡	82.6133㎡	24.9905평형
	74A	28	74.9955㎡	27.7244㎡	102.7199㎡	31.0727평형
	74B	8	74.9675㎡	28.4067㎡	103.3742㎡	31.2706평형
	84A	26	84.8718㎡	30.7954㎡	115.6672㎡	34.9893평형
	84B	14	84.9404㎡	31.3319㎡	116.2723㎡	35.1723평형
	108A	9	108.4649㎡	40.2856㎡	148.7505㎡	44.9970평형
	108B	12	108.6375㎡	41.7277㎡	150.3652㎡	45.4854평형
	합계	155세대	11,556.5232㎡	4,332.1359㎡	15,888.6591㎡	-
근린	유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비고
	1층	135.1418㎡	30.9300㎡	250.8317㎡	416.9035㎡	
	합계	135.1418㎡	30.9300㎡	250.8317㎡	416.9035㎡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 기준이며, 향후 관리처분 및 인허가(변경포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신청 자격 :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정관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8.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10. 이주 및 월거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월거 및 이주 기간에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안내서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 2026년 1월 2일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김재문 [직인 생략]

## 반도체, ‘수출증가’ 견인… 亞·EU 등 시장 다변화 성과

### » 1면 ‘韓 경제성장률’…서 계속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지난해 3분기 인도(2.0%), 사우디아라비아(1.4%)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정부가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4분기에도 호조세가 지속됐는지 주목된다. 4분기 결과에 따라 연간 1%대 성장이나, 아니면 0%대에 머무느냐가 판가름 난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한 26억 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와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도 1.7% 증가한 720억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이 각각 30%, 75.1%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출은 각각 3.9%, 13.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지만, 아세안·EU·CIS 등으로의 수출이 늘며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수출이 줄며 3.8% 감소한 1229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 폭을 일

부 상쇄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95억달러로 전년보다 61억달러 줄었다. 대 중국 수출도 1.7% 감소한 1308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7.4% 증가한 1225억달러로 대미 수출 규모를 바짝 추격한 모습이다. EU 수출은 70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CIS 수출은 자동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6% 늘며 9대 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192억 4000만달러), 중동(204억 4000만달러), 중남미(310억 1000만달러) 등 신흥시장 수출도 일제히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한용수기자 kys@